

# 아동기의 도덕적 사회화과정

Content Analysis of Self-Reports on Childhood Moral Socialization

김 광 웅

Kim, Kwang Woong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방 은 렁

Bang, Eun Ryung

(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강사)

## 목 차

I. 서 론	1.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II. 연구방법	2. 경험에 따른 도덕성 발달과정
1. 연구대상	3. 아동기를 통해서 형성된 도덕개념
2. 조사도구	
3.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III. 연구결과 및 해석	
	IV. 결 론
	* 참고문헌
	* 영문요약

## I. 서 론

아동의 성장과정에서 도덕성의 발달은 아동자신의 삶이나 사회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준다. 이론적으로 도덕성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다루어지고 있는데, 행위의 결과를 도덕성의 주체로 보는 관점도 있고 행위에 대한 동기 또는 행위 후의 반성을 도덕성의 주체로 보는 견해도 있다.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는 도덕성을 ‘양심’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양심이 인간의 모든 도덕적 행위를 내면적으로 통합하고 통제하는 일관된 성격특성이라는 것이 이들의 견해이다. 초자아를 구성하는 양심은 이른바 외디푸스콤

플렉스를 극복하는 시기인 5-6세 경에 부모를 동일시하는 심리적과정을 거친으로써 형성된다고 하였다. 일단 이러한 내면화가 이루어지면 밖으로부터 들어온 도덕적 기준이 마치 내부에서 발생한 것과 같은 ‘양심’으로 인식되는데, 만약 불완전한 도덕적기준이 내면화되면 초자아의 힘은 그 만큼 약해져서, 도덕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성격을 지니게 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습이론적 입장에서는 도덕성이라는 것을 관찰가능한 구체적인 도덕행위의 종합체로 보고 있다. 즉 특정의 행동을 해야 할 상황에서 개인이 갖는 내면적인 이유나 갈등보다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행위로서의 결과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학습이론에서 도덕성이란 도덕적 행위이며, 이는 훈련이나 모델링 그리고 상과 벌에 의해 길러질 수 있는 것이다.

한편 도덕성을 발달론적 관점에서 이해한 Piaget 중심의 인지이론가들은 도덕성발달은 개인이 지닌 도덕적인 태도와 개념이 전(前) 도덕적인 상태로부터 절적으로 전혀 다른 도덕적 성숙의 단계로 변화해가는 과정이라고 규정하고, 행위의 주체로서 개인이 그를 둘러싼 사회적 환경을 어떻게 인식하며 사회환경 내의 여러가지 규범을 어떻게 개념화 하느냐에 따라 도덕성 발달이 결정된다고 보았다.

이와같이 도덕성을 설명하고 있는 관점은 다양하다. 실제로 도덕성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정의내리기란 매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도덕적인 인간’이란 말을 곧잘 사용하며, 도덕적인 인간으로 기르는 것을 교육의 중요한 역할이자 목표로 삼고 있다. 그것은 한 개인의 도덕성의 발달이 그 자신의 삶은 물론 그가 속한 사회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는 분명한 사실 때문인데,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 따라서 도덕성의 존재는 곧 인간사회의 존립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인식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 사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도덕성의 개념을 어떻게 지니고 있으며, 어떠한 삶을 가치롭게 여기느냐 하는 것은, 양육과 교육 실제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도덕성이 형성되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도덕적인 인간을 기르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될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도덕성은 어린 시기에 그 기초가 형성되며 학동기 동안 확고하게 다져진다고 알려져왔다. 성장과정에서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환경이 아동의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정환경은 특히 중요하며, 부모의 양육태도는 아동의 인성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된다. 기존의 연구들은 부모가 자녀에게 애정을 자주 표현하고, 힘에 기초한 훈육(power-assertive discipline)이 아닌 유도적인 훈육(inductive discipline) 방법을 취할 때 자녀의 도덕적 내면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Hoffman, 1979). 또한 부모들은 일상생활에서 자녀를 양육할 때 동성의 자녀에게는 엄격하지만, 이성의 자녀에게는 관대한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어머니보다 아버지가 더 강하다는 견해들도 있다(Droppeleman & Shaeffer, 1963; Armentrout & Buger, 1972). 반면에 부모들은 동성의 자녀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갖게 되는데(Adams & Davis, 1978; Thompson, 1975),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아버지들에게서 이러한 현상이 발견되었다. 즉 아버지들은 딸보다 아들의 성장 발달에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자녀의 성공에 대한 기대에서도 아들에게 더 큰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들에게는 장차 사회생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필요한 성격(정직, 용감, 책임감, 자립심 등)을 기대하는 반면, 딸에게는 온순하고 명랑한 성격 등을 기대한다는 것이다(문미옥, 1985). 이와같은 부모의 양육태도가 초기 도덕성 형성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아동의 경험은 개인마다 다르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아동이 갖는 경험의 내용도 점점 다양해지기 때문에, 아동의 도덕성을 부모환경에만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본다. 아동이 어느 시기에, 어떤 경험을 통해서, 어떤 내용의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었는지 보다 다각적인 입장에서 도덕성의 발달을 다루는 것이 양육과 교육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와같은 관

점에서 도덕성의 발달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아동기 동안 만난 경험중에서 어떤 것이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는지, 또 그 경험 속에서 형성된 도덕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이때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등을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또한 우리 사회가 인식하고 있는 도덕성이란 어떤 것이며, 살아가는데 있어서 사람들이 가장 가치롭게 여기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을 정리하고자 하였다. 이는 도덕성 발달과정에 대한 분석과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 추구하는 가치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암으로서, 아동의 도덕성 발달을 위한 양육과 교육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나의 지침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토대로 문제 해결에 접근하였다.

1. 아동기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2. 도덕성이 형성되는 시기는 언제인가?
3. 아동기 동안 도덕성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는가?
4. 아동기 동안 형성된 도덕성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5. 아동기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장 후의 사고와 행동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6. 우리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도덕성의 개념은 무엇인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과 춘천지역의 대학생 408

명이다. 이 중 남학생은 162명이고 여학생은 246명이며, 이들의 전공과 학년의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전공분야……N

전공분야	남	여	계
인문과학계열	25	25	
자연과학계열	9	33	42
사회과학계열	4	37	41
공학계열	86	4	90
농·임학계열	63	29	82
예능계열	98	98	
가정계열	20	20	

〈표 2〉 연구대상자의 학년분포……N

학년	남	여	계
1	2	68	70
2	136	114	250
3	6	26	32
4	18	38	56

본 연구의 대상자를 대학생으로 제한한 것은, 발달적으로 이들은 성인기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가치관 정립과 삶의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 사고의 성숙이 이루어졌으며, 최고의 교육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로서 도덕성의 개념을 설정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는 계층이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 2. 조사 도구

본 연구는 연구 대상자의 자기보고서(self-report)

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에게 “아동기 동안 자신의 도덕성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인가? 형성요인과 형성과정 및 그 때 형성된 도덕성이 현재까지도 자신의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 상술하라.”는 질문을 주고 자기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하였다.

### 3. 연구 절차 및 분석방법

본 연구자는 1991년 6월 5일에서 18일 사이에 연구대상자들을 직접 만나 자기 보고서 작성은 요구하였다. 이때 연구자는 진술형식이나 도덕성의 개념 등에 대해서는 일체 언급하지 않았으며, 질문 이상의 어떤 내용도 연구대상자에게 이야기하지 않았다. 자기보고서 작성은 학교 강의실에서 집단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소요시간은 각각 약 2시간 정도였다. 작성된 보고서는 본 연구자가 직접 회수하였으며 회수된 보고서는 처음 603개였으나, 진술내용이 성실하지 못한 186개와 분석이 어려운 9개는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여, 최종 연구자료로 사용된 보고서는 408개였다.

자기보고서는 ‘내용분석’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내용분석은 본 연구자와 아동심리전공의 석사과정을 이수한 3명이 함께 하였다. 분석내용은 아동기 도덕성의 형성 요인, 주된 형성시기, 효과의 지속 여부 등이며, 마지막으로 진술 내용을 통해서 도출된 도덕성의 개념을 정리하였다.

분석기간은 1991년 7월에서 1992년 3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진술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토대로 분석하였다.

1) 요인……성장과정에서 어떤 종류의 경험이 연구대상자의 도덕적 내면화를 촉진시켰느냐를 분석

(표 3 참조)

#### 2) 시기

\* 학령전기…국민학교 입학이전까지의 시기로서 연령상으로는 만 6세까지이며, 진술내용 중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억이 희미하지만 어렸을 때에’ ‘글을 아직 읽지 못하던 때에’ 등의 표현도 여기에 포함시킴.

\* 학동기…국민학교 시기로서 연령상으로는 만 7세에서 12세까지이며, 진술내용 중 ‘아동기’라는 표현도 포함시킴.

\* 청소년기…중, 고등학교 시기로서 연령상으로는 만 13세에서 18세까지임.

#### 3) 도덕성 개념

정직…정직, 솔직, 양심적, 소신, 청렴결백, 강직, 언행일치, 물욕이 없음 등

사랑…사랑, 봉사, 이해, 희생, 관용 등

사회규범…사회규범, 질서의식, 규칙준수, 협동, 전통적인 성역할 수행 등

분별력…분별력, 옳고그름의 판단, 절제, 김소 등

충효예절…웃어른 공경, 예의바름, 나라에 충성, 권위에 순종 등

성실…성실, 솔신수범, 최선, 모범 등

책임감…책임감, 약속을 지킴 등

반성…반성, 기도 등

기타…개념 정립이 제대로 안된 경우

### III. 연구결과 및 해석

도덕성 발달에 관한 자기보고서는 형성요인, 형성과정, 주된 형성시기, 효과의 지속성 및 도덕성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1.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아동기 동안 본 연구대상자들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은 자신이 경험한 주변의 인물이나 사건, 책, 종교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이들 경험 내용에 따라 사람의 경험, 사건의 경험, 책의 경험, 종교의 경험으로 나누었는데, 각 경험들이 갖고 있는 내용은 〈표 3〉과 같으며 요인별 비율은 〈표 4〉와 같다.

〈표 3〉 경험의 내용

요인	내용
사람의 경험	일상생활에서 부모,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 조부모, 친척, 선생님, 친구, 목사님, 이웃 등의 훈육이나 모델링을 통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사건의 경험	특정의 도둑질, 거짓말, 컨닝, 장난, 싸움, 선행 등의 사건에 직접 개입하거나 또는 이와같은 사건을 관찰한 것을 계기로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책의 경험	위인전, 동화, 소설, 교과서, 교양서적 등을 직접 읽거나 또는 이야기를 들음으로써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종교의 경험	종교생활을 통해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

〈표 4〉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준 요인 비율

요인	빈	도	(%)
사람의 경험	114(70.37)	145(58.94)	259(63.48)
사건의 경험	25(15.43)	44(17.89)	69(16.91)
책의 경험	14( 8.64)	34(13.82)	48(11.77)
종교의 경험	9( 5.56)	23( 9.35)	32( 7.84)
합계	162(100.00)	246(100.00)	408(100.00)

### 2. 경험에 따른 도덕성 발달 과정

#### (1) 사람의 경험

아동기 동안 경험한 ‘사람’으로 인해 성장과정에서 자신의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보고한 경우는 모두 259명으로 전체 응답자의 약 63.

48%를 차지하였다. ‘사람의 경험’ 요인 중 남여 모두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람은 부모(남 30.89%, 여 37.45%)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경우에는 아버지(41명), 부모 모두(20명), 어머니(19명)의 순으로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여자는 어머니(46명), 아버지(29명), 부모 모두(22명)의 순으

로 나타나 남자는 부모 중 아버지의 영향을, 여자는 부모 중 어머니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족 및 친척에서는 남자가 조부모, 형, 백부숙부 등으로 한정된 반면, 여자는 언니, 오빠, 동생, 조부모, 백부, 숙부 등 영향을 준 대상이 더 다양하였는데, 기타의 경우에서도 이와 같은 현상

이 발견되었다. 선생님의 경우에는 국민학교 때 담임선생님의 영향을 받은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중학교 때의 학과 담당선생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경우는 남여 각각 1명이었다. 그외 기타에는 친구, 이웃사람, 목사님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5〉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람 1……N(%)

사 람	남	여	전 체
부모님	80(70.18)	97(66.90)	177(68.34)
가족 및 친척	15(13.16)	19(13.10)	34(13.13)
선생님	15(13.16)	18(12.41)	33(12.74)
기 타	4( 3.50)	11( 7.59)	15( 5.79)
계	114(100.00)	145(100.00)	293(100.00)

〈표 6〉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 사람 2……N

부 모			가족 및 친척			선 생 님			기 타		
구성	남	여	구성	남	여	구성	남	여	구성	남	여
부모	20	22	조부	3	1	학급담임	14	15	친구	1	3
부	41	29	조모	6	5	교과담임	1	1	목사		2
모	19	46	형(오빠)	2	2	가정교사		2	교회교사		2
			언니(누나)		8				동네어른	2	4
			동생		1				기타	1	
			백부	1	1						
			숙부	3	1						
계	80	97		15	19		15	18		4	11
계		177			34			33			15
계											259

‘사람의 경험’ 요인에서 도덕성이 형성된 과정은 크게 훈육과정과 모델링 과정, 그리고 훈육과 모델

링이 혼합된 과정으로 구별되었다.

〈표 7〉 사람의 경험 : 도덕성 형성과정……N

사람 형성과정	부 모		부		모		가족 및 친척		선생님		기 타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훈 육	12	8	23	8	12	24	6	8	12	13	1	1	131(66/65)
모 델 링	8	9	25	12	6	15	8	8	1	3	3	6	94(41/53)
훈육+모델링	5	3	9	1	7		1	3	2	2		1	34( 7/27)
계													259(114/145)

〈표 7〉을 보면 사람의 경험에서 도덕성이 훈육을 통해 형성된 경우는 전체의 50.57%였고, 모델링에 의한 경우는 약 36.29%였으며 훈육과 모델링이 혼합된 경우는 13.12%였다. 여기서 ‘훈육’이란 아동 기동안 연구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낸 행동 또는 태도에 대해 “사람”이 지적, 꾸짖음, 체벌, 설명, 대화, 이해, 용서 등의 방법으로 일일이 개입을 해온 경우를 말하며, ‘모델링’이란 연구대상자가 아동기 동안 “사람”的 평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서 도덕성을 형성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한편 이 두 과정이 혼합된 경우가 ‘훈육과 모델링’과정이

다.

먼저 훈육의 형태를 보면 이는 엄격한 형태와 온정적인 형태로 구별되는데, 엄격한 형태에는 아동기 동안 연구대상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사람”이 지적, 꾸짖음, 야단, 비난 등의 반응을 주로 한 ‘통제’와 체벌을 주로 한 ‘체벌’의 형태로 구분되었다. 또한 훈육의 온정적인 형태는 아동기 동안 연구대상자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 합리적인 ‘설명’을 주로 해 준 경우와 ‘대화’를 주로 나눈 경우, 그리고 이해와 사랑, 용서, 칭찬을 주로 해 준 ‘관용’의 형태로 구분되었다.

〈표 8〉 훈육의 형태……N

사람 훈육형태	부 모		부 모		가족 및 친척		선생님		기 타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엄격한 형태											66(33/33)	
통제	4	5	9	4	8	8	1		3	3	1	49(26/23)
체벌	1	1	3	4	1	2			2	1		17( 7/10)
온정적인 형태											64(33/31)	
설명	4	1	10		3	8	3	2	3	6	2	42(23/19)
대화	1	1	1		3		1		1	2		10( 3/ 7)
관용	2				3	2			3	1	2	12( 7/ 5)
기 타					1						1( 0/ 1)	
계											131(66/65)	

〈표 8〉을 보면 전반적으로 엄격한 형태와 온정적인 형태가 각각 50%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아동기에 아버지로 부터 받은 훈육은 온정적인 형태의 훈육을 받은 경우와 엄격한 형태의 훈육을 받은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아동기 동안 아버지로 부터 받은 훈육은 엄격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경향은 어머니의 훈육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여자의 경우 아동기 동안 어머니로 부터 받은 훈육은 엄격한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와 온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가 비슷한 비율로 나타난 반면, 남자들은 어머니로부터 엄격한 형태의 훈육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부모가 동성의 자녀에게는 엄격하고 이성의 자녀에게는 관대하다고 밝히고 있는 것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띠는 것이었다.

한편 아동기 동안 ‘사람’의 훈육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반응은 훈육의 형태가 엄격하거나 온정적이거나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수용’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훈육에 대한 연구대상자들의 반응.....N

훈육 형태 반응	엄격한 형태		온정적인 형태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수 용	32	30	33	31			126
거 부	1	2			1	4	
흔 돈		1				1	
							131

훈육이 엄격하게 이루어진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사람’의 이러한 훈육이 옳았으며 자신의 성장과정에서 도덕성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66명 중 62명). 훈육이 온정적인 형태로 이루어진 경우는 응답자의 모두가 ‘사람’의 훈육을 수용하였다. 훈육에 대해 거부 반응을 보인 사람(남 1, 여 3)은, 훈육이 너무 엄격하여 자신이 기계적인 행동을 하게 된 것에 회의를 느끼거나, 훈육자가 일관되지 않은 태도를 보인 경우, 훈육자의 태도가 너무 교훈적이어서 반발심이 생긴 경우, 그리고 종교적 차원에서 너무 절제된 생활을 강요한 경우였으며, 엄격한 형태에서 훈육자의 훈육을 수용한 여자 가운데 두명은 공포심에서 훈육자를 따른 것이 자연스레 몸에 배이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므로 훈육자의 태도가 일관성이 있고 훈육 대상자에게 신뢰감을 주었을 때에는 훈육과정이 온정적이거나·엄격하거나 상관없이 훈육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훈육자와 훈육대상자 간에 신뢰감이 형성되어 있지 못할 때에는 훈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사람’이 연구대상자에게 한 훈육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훈육내용을 살펴보면 정직, 분별력,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이 많았는데, 여자의 경우 사회규범, 분별력, 정직, 충효에절의 순서로 훈육이 많이 이루어진 반면, 남자들은 정직, 분별력, 성실, 충효에절의 순서로 훈육이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의 경우 아들에게 한 훈육은 그 내용이 다양하게 나타난 반면, 딸에게는 분별력, 예절, 정직 등에 한정되어 있었는데, 어머니의 경우에도 이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어머니도 아들에 비해서 딸에게 하는 훈육 내용이 더 다양하게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어머니의 경우를 보면 딸에게 특히 사회규범과 관련된 훈육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기 동안 연구대상자들은 평소 언행이

〈표 10〉 사람의 경험 : 훈육내용……N

모델링내용	부모		가족-친척		교사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분별력이 있을 것	4	5	7	2	4	4	29(16/13)
충효예절을 지킬 것	4	1	2	4	2	1	18( 8/10)
정직할 것	4	1	4	2	5	2	30(19/11)
사회규범을 따를 것	1	3	1	12	2	1	25( 7/18)
사랑을 실천할 것	-	2		1	1	2	12( 5/ 7)
성실할 것		5		1		3	10( 9/ 1)
책임감을 가질 것			1	1		1	3( 1/ 2)
기타			1	2		1	4( 1/ 3)
계							131(66/65)

일치하고 예절을 지키며, 성실한 삶의 태도와 지극한 사랑을 베푸는 사람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고 이

〈표 11〉 모델링 내용……N

훈육내용	부모		가족-친척		교사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언행일치	3	11	6	1	4		29(25/ 4)
예절	3	5	2			1	11( 0/11)
성실	3	4	3	1	2	1	18(10/ 8)
사랑	2	1	2	5	1	2	14( 4/10)
분별력	1	1			1	1	4( 0/ 4)
사회규범	1		4		5		10( 0/10)
기타		4	1	1	1	1	8( 2/ 6)
계							94(41/53)

(표 11)을 보면 남자의 경우는 언행일치, 성실함을 보여주는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여자는 예절, 사랑, 분별력,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실

천하는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들 가운데에는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을 통해서도 도덕성 형성에 좋은 영향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표 12) 모델에 대한 아동의 반응……N

반응	남	여	계
동일시	39	52	91
비판	2	1	3
계	41	53	94

즉 이들은 바람직하지 못한 모델에 대한 '비판' 과정을 통해 바람직한 태도와 행동을 형성하게 되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일상생활에서 친할머니의 도벽행동을 자주 목격하면서 절대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성장한 경우와, 친구 아버지의 술주정으로 친구가 늘 괴로워 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자신은 절대로 술을 배우거나 가족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지 않을 거라고 결심하며 성실하게 생활한 경우, 그리고 어머니의 이기적인 행동들이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를 주는 것을 보고, 남을 생각하고 위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며 성장한 경우 등이다. 그러나 모델링을 통해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 대부분 바람직한 모델들을 만났으며, 이들은 동일시 과정을 통해 도덕성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밖에 '사람의 경험'에서 '훈육과 모델링'이 혼합된 경우는 모두 34명이었는데 이들의 부모 또는 교사 및 주변의 인물들은 연구 대상자들의 아동기 행동에 대해 세심한 개입을 하면서도 성실한 본보기가 되어 줌으로써 연구 대상자들의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준것으로 나타났다. '훈육과 모델링'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은 정직(10명) 사랑(10명) 사회규범(3명) 예절(3명) 중용(1명) 성실(6명) 분별력(1명)과 관련된 도덕성을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도덕성이 형성된 시기는 학령기 동안이 가장 많았으며 그때 형성된 도덕성은 대부분 현재까지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아동기에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도덕성이 현재에는 그 효과가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고 진술한 사람은 모두 14명(남 1, 여 13)이었는데, 이들 중에는 대학생이 되어 돌아온 후 지난달 부모의 훈육이 너무 엄격하여 이젠 따르고 싶지 않다는 경우(6명)와, 이젠 본인의 의지대로 행동할 수 있으므로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4명), 대학에 와서 친구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되어 부모의 훈육이 의미를 잃게 된 경우(1명), 과거 부적절한 모델로 인해 현재의 가치관에 혼란이 생

(표 13) 도덕성 형성시기—사람의 경험……N

형성시기	부모		부		모		가족—친척		교사		기타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령전기 동안	8	14	13	9	3	23	4	4			3		81(28/53)
학동기 동안	12	8	27	20	16	21	9	15	12	13	2	6	161(78/83)
학동기 이후			1		2		2		3	5	2	2	17(8/9)
계													259(114/145)

〈표 14〉 효과의 지속—사람의 경험……N

안정성	부모	부	모	가족-친척	교사	기타	계 (남/여)					
	남	여	남	여	남	여						
학동기까지					2		2(0/2)					
청소년기까지	2	1	3	4	2		12(1/11)					
현재까지	20	20	40	26	19	42	15	15	18	4	11	244(113/132)
계												259(114/145)

긴 경우(2명), 그리고 자신의 가치관의 변화로 ‘효’의 의미가 약화된 경우(1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이들 중 대부분이 여자(14명 중 1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이 아동기 동안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한 도덕개념은 다음과 같이 분석되었다.

〈표 15〉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도덕개념…  
…N

도덕성	남	여	계
사랑의 실천	26	34	60
정직한 것	29	29	58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20	32	52
분별력이 있는 것	12	20	32
충효예절을 지키는 것	12	18	30
성실한 것	10	6	16
책임감이 있는 것	4	5	9
기타	1	1	2
계	114	145	259

연구대상자들이 아동기 동안 경험한 ‘사람’의 훈육이나 모델링을 통해 형성하게 된 도덕개념은 ‘사랑의 실천’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부모’를 통해

서 이와 같은 인식을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자들은 부모가 가족과 자식들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봉사하는 과정을 경험하면서, 도덕적 인 인간의 모습을 설정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충효와 예절, 그리고 성실함을 가르치고 몸소 실천한 ‘사람’을 통해서도 ‘사랑’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러나 이 중에는 너무나 이기적인 어머니나, 술 주정뱅이인 친구 아버지를 통해서 이러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그밖에 이들이 형성한 도덕성은 정직한 것,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분별력이 있는 것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 (2) 사건의 경험

아동기 동안 경험한 어떤 사건이 계기가 되어 자신의 도덕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람은 전체 408명 중 69명이었다(남 25/162, 여 44/246). 남자의 경우,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람은 22명이고, 나머지 3명은 타인의 사건을 관찰하면서 영향을 받은 것이며, 여자의 경우는 사건에 직접 개입한 사람이 39명이고 나머지 5명 역시 타인의 사건을 관찰한 경우였다. 사건의 내용은 ‘남의 물건을 가져간 일’이 3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외 거짓말(14명), 싸움 협박 등의 불량행동(5명), 커닝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다(표 16).

〈표 16〉 사건의 내용……N

내 용	남	여	계
남의 물건을 가져간일	9	24	33(47.9)
거짓말	5	9	14(20.3)
불량행동	5	1	6( 8.7)
장난		3	3( 4.3)
남을 의심		2	2( 2.9)
컨寧	1	2	3( 4.3)
타인 간병	2	1	3( 4.3)
기타	3	2	5( 7.2)
계	25	44	69(100.0)

사건에서 '남의 물건을 가져간 일'의 경우 남자 1명과 여자 6명은 훔친다는 생각없이 그냥 가져간 경우였고, 훔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래의 유혹이나 호기심 또는 도벽으로 인해 타인의 것을 훔친 경우는 26명이었다. 훔친내용은 돈이 절반을 차지하였으며(14명 : 남 3, 여 11) 그외 장난감, 먹을것, 학용품 등이 있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집안보다 집밖에서 일어난 경우가 더 많았는데(집안 14, 집밖 19) 집안에서 일어난 경우 훔친 내용은 대부분 '돈'이었으며, 집밖에서는 주로 물건을 훔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의 경험에서 연구 대상자들은 사건이 일어난 후부터 결과에 이르는 문제해결과정 속에서 사건을 일으킨 자와 사건을 해결짓는 환경간에 어떤 상호작용을 하였느냐에 따라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

은 것으로 나타났다.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부모나 교사 또는 주변의 어른에게 들켰으나 남자 2명과 여자 6명은 들키지 않았는데, 이중 여자 4명은 사건 직후 스스로 고백하여 용서를 구했고, 나머지 4명은 지금까지 고백하지 않은 상태라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있는 경우도, 그동안 심정적으로는 늘 불편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로인해 자신의 도덕성 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다. 즉, 사건에 대한 죄책감과 고백을 하지 못한 자신에 대한 질책 등으로, 다시는 그런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음은 물론 보다 더 바람직한 행동을 하고자 노력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

한편 바람직하지 못한 사건의 경우, 문제 해결과정은 부모 또는 사건과 관련된 어른이 사건을 저지른자에게 꾸중이나 체벌과 같은 엄격한 태도를 취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나, 잘못의 책임을 어른 자신에게 돌리는 '자책'도 있었다.

여기서 '설명'이란 관련 성인이 관련 아동에게 '네가 한 일이 왜 그르고 잘못되었는지에 대해 아동이 납득하도록 말해주는 것'을 말하며, 기타에는 현재까지 사건을 숨긴 경우나 어른의 태도가 혼란스러운 경우, 그외 병든 환자를 지성으로 간호하는 감동적인 장면을 경험한 것 등이 포함된다. (표 18)에서 보면 문제해결과정 중 남자에게 주로 사용된 것은 체벌이나 꾸중이었으며, 여자의 경우는 해결과정이 보다 더 다양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성인들은 자신과 관련된 아동이 바람직

〈표 17〉 남의 물건을 가져간 동기……N(계 33)

동 기	남(9)	여(24)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알고 행한 경우	8	18
훔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을 모르고 행한 경우	1	6

〈표 18〉 문제해결과정 1……N

문제해결과정	남(25)	여(44)	계(69)
꾸중	7	10	17
체벌	8	10	18
쫓아냄		1	1
설명	2	14	16
용서	2	2	4
자책		1	1
기타	6	6	12
계	25	44	69

하지 못한 행동을 한 경우, 용서와 같은 온정적인 형태보다는 잘잘못을 따져주는 엄격한 기능을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해결과정을 통해 연구 대상자들이 경험한 심리적인 변화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 대부분이었고 이를 계기로 도덕성을 형성하게 되었으나, 한 여자 응답자는 같은 반 친구가 잘못한 행위를 했을 때 이를 바로잡아 주려다 오히려 친구로 부터 한대 얄어 맞았는데, 이를 지켜보던 담당교사가 “가만 있지, 왜 끼어들이 얻어맞느냐? 이런일은 그저 못본 척 하는것이 상책

〈표 19〉 문제해결과정 2……N(계 69)

문제해결과정	부모		가족 및 친척		교사		기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꾸중	1	8	1		5	1		
체벌	5	8	1		2	2		
쫓아냄		1						
설명	1	12		1	1	1		
용서	2				1	1		
자책		1						
기타					1	6	5	

…”이라는 반응을 한 것에 너무 충격을 받아, 지금 까지도 가치관 정립이 매우 혼란스러움을 고백하고 있었다.

한편, ‘사건의 경험’을 통해 도덕성이 형성된 시기는 주로 학동기 동안이었으며 이때 형성된 도덕성은 대부분 현재까지 그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20〉 도덕성 형성 시기 및 효과의 지속성—사건의 경험……N(계 69)

형성시기	남	여	안정성	남	여
학령전기동안	4	13	학동기까지	1	
학동기동안	17	31	청소년기까지		
청소년기동안	4		현재까지	24	44

이들 가운데 남자 한명은 자신이 저지른 행동에 비해 아버지의 별이 너무 엄격하여, 자신의 행위에 대한 죄책감이 학동기 이후에 사라졌다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아동기 때 형성된 도덕성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진술한 여자 가운데 한명은 그때의 혼란한 상태가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연구 대상자들에게 형성된 도덕개념은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 (3) 책의 경험

408명의 연구대상자들 가운데 48명(남 14, 여 34)은 아동기 동안 접한 위인전, 동화책, 교과서 등이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들은 이야기 듣기를 통해서 혹은 스스로 읽거나 수업시간을 통해 이러한 책들을 접하게 되었는데,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가운데 위인전에는 간디, 이순신, 화랑관창, 신사임당, 박제상, 김구, 슈바이ツ, 헬렌켈러 등이

〈표 21〉 사건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도덕개념……N

도덕성	남(25)	여(44)	계
정직한것	11	33	44
분별력이 있는것	4	7	10
사랑의 실천	4	1	5
충효예절을 지키는것	1	1	2
책임감이 있는것	1	1	2
성실한것	1		1
반성하는것	1		1
기타			1
계	25	44	69

포함되어 있으며, 동화책에는 홍부전, 콩쥐팥쥐, 프란다스의 개, 신데렐라, 이솝우화, 작은아씨들, 안데르센 동화집, 소공녀, 한국전래 동화 등이 포함되어 있고, 종교서적에는 “탈무드”와 “요나라는 선지자”가, 소설에는 “오성” 그리고 교과서엔 국어, 역사, 바른생활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22〉 책의 경험 : 종류와 과정……N(계 48)

종류	남	여	과정	남	여	시기	남	여
위인전	7	7	듣기	3		학령전	1	5
동화책	5	16	읽기	13	26	국민학교	12	27
종교서적	2		수업	1	5	중학교	1	1
교과서	6					고등학교		1
소설	1							
기타	1	3						
계	14	34		14	34		14	34

‘책의 경험’을 통해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대상자 가운데 대부분(남 14명, 여 28명)은 이때 형성된 도덕성이 현재까

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여자중 6명(동화책 2명, 교과서 4명)은 아동기 이후 책의 내용에 대해 대단한 실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어린시절 신데렐라와 홍부전을 읽고 감동하였던 2명은 중학생이 된 후, 착한사람이 바보취급을 당하고 손해보는 사회를 경험하면서 ‘권선징악’을 믿지 않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역사(1명)와 바른생활(3명) 교과서를 통해 아동기 자신의 사고와 행동기준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4명은, 학동기가 지나면서, 책의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교과서의 내용을 불신하게 지나면서, 책의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를 내용과 현실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바른생활의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은 4명 중 3명이, 성장하면서 책의 내용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놀라운 결과가 아닐 수 없다.

한편 아동기의 책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도덕개념은 다음과 같다.

〈표 23〉 책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도덕개념……N

도덕성	남(14)	여(34)
사랑의 실천	4	12
사회규범을……	0	15
충효예절을……	6	3
정직한 것……	1	1
성실한 것……	1	1
분별력……	2	0
반성하는……	0	1
기타	0	1

〈표 23〉을 보면 책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 도덕개념은 ‘사랑의 실천’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는데, 특히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은 여자의 경우에만 나타나, 기존의 책들이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다룰 때, 성역할을 뚜렷히 구분하고 전형적인 성유형 모델을 전달했을 가능성 이 높다고 보여진다.

#### (4) 종교의 경험

아동기 동안 경험한 종교로 인해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진술한 사람들은 모두 32명(남 9/162, 여 23/246)으로 전체 연구 대상자의 7.8%를 차지하였다. 이들의 종교는 기독교가 30명으로 가장 많았고, 천주교 1명, 그외 ‘신’의 존재라고 밝힌 경우가 1명이었다. 이들이 종교를 경험하게 된 과정은 모태신양인 경우가 13명이었으며, 종교적인 프로그램이나 서적 또는 설교를 통해 종교를 갖게 된 경우는 19명이었다. 이들 중 30명은 종교를 통해 아동기동안 형성된 도덕성이 현재까지도 그 효과를 지니고 있다고 진술하였고, 나머지 2명은 청소년기가 되면서 교인이나 교회의 잘못된 모습에 회의를 느껴 이 후부터는 종교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표 24〉 종교의 경험……N(계 32)

종교	남	여	과정	남	여	안정성	남	여
기독교	8	22	모태신양	3	10	아동기동안		
천주교	1		선택	6	13	청소년기까지	1	1
신						현재까지	8	22

한편 아동기의 종교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도덕개념은 ‘매일 매일 반성하는 생활’이 가장 많았으며 그외 사랑의 실천,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등으

로 나타났다.

〈표 25〉 종교의 경험으로 인해 형성된 도덕개념…N

도덕성	남(9)	여(23)	계
반성하는 생활	5	9	14
사랑의 실천	2	10	12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1	3	4
분별력이 있는 것		1	1
정직한 것	1		1
계	9	23	32

### 3. 아동기를 통해 형성된 도덕개념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연구 대상자들은 아동기 동안 ‘사람의 경험’ ‘사건의 경험’ ‘책의 경험’ ‘종교의 경험’을 통해 도덕성 발달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아동기를 통해 형성된 도덕성의 개념은 정직한 것(25.7%) 사랑의 실천(22.8%)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17%) 등의 순서로 많이 나타났는데, 요인별로 나타난 순위는 〈표 26〉과 같다.

〈표 26〉에서와 같이 남녀 모두 아동기를 통해 형성된 도덕성은 ‘정직한 것’과 가장 관련이 많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들 중 ‘사람의 경험’과 ‘책의 경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사랑의 실천’을 가장 많이 배웠으며,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는 ‘정직’을, 그리고 ‘종교의 경험’을 통해서는 자신을 돌아보기로 반성하는 자세를 가장 많이 배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들 중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도덕성의 개념은 바로 ‘정직(25.73%)’이며 그 다음이 ‘사랑(22.79%)’, ‘사회규범(17.40%)’, ‘분별력(11.27%)’,

〈표 26〉 아동기를 통해 형성된 도덕개념 : 요인별 순위(N)

도덕성	성별		경험				전체 순위
	남	여	사람	사건	책	종교	
	(162)	(246)	(259)	(69)	(48)	(32)	(408)
정직한 것	1	1	2	1*	4	4	1
사랑의 실천	2	2	1*	3	1*	2	2
사회규범을…	3	3	3		2	3	3
분별력이……	5	4	4	2	4	4	4
충효예절……	4	5	5	4	3		5
성실한 것…	6	7	6	6	4		6
반성하는 생활	7	6		6	7	1*	7
책임감이……	8	8	7	7			8
기타			8		8		9

‘충효예절(10.24%)’, ‘성실(4.65%)’, ‘반성(3.92%)’, ‘책임감(2.69%)’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즉 우리사회에서 도덕적으로 가장 가치있게 인식되는 것은 바로 ‘정직한 것’이며,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등도 중요한 가치기준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 론

본 연구는 아동기의 도덕성이, 어느 시기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형성되며, 또 이때에 형성된 도덕성이 성인이 되어서 까지도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인식되고 있는 도덕성의 개념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먼저 아동기의 도덕성은 학령전기(31%)와 학동기(62%) 동안 가장 많이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이론을 토대로 볼 때, 특히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 보면, 초기의 도덕성은 학령

전기에 부모 자녀 간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나, 본 연구에서는 학령전기보다는 오히려 학동기 동안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본 연구 결과는 연구 대상자들의 진술내용만을 토대로 이루어졌다는 제한점, 즉 현재 대학생인 이들이 자신의 아동기를 회상하는 데에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들이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도덕적 내면의 세계에 대해 본 연구가 접근하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도덕성이라는 것이 한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 어떤 유대관계를 가져나가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것이고, 그 개인이 자신의 욕구와 사회적 의무간에 피할 수 없는 갈등을 어떻게 조절해 나가느냐의 문제가 바로 도덕발달이라고 볼 때, 성인이 된 지금, 자신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의 도덕발달과정은 매우 유의미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의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아동이 경험한 ‘사람(63.5%)’, ‘사

건(16.9%)’, ‘책(11.8%)’, ‘종교(7.8%)’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람’의 경험으로 인해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를 보면, 남녀 모두 부모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았으며, 특히 동성의 부모로 부터 더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자의 경우 도덕적으로 영향을 준 사람이 부모나 선생님 등으로 한정된 반면, 여자의 경우는 보다 더 다양하게 나타났다. 사람의 경험에서는 일반적으로 훈육과 모델링 과정을 통해 도덕성을 형성하였는데, 훈육과정을 보면 남녀 모두 동성의 부모로 부터는 엄격한 형태와 온정적인 형태의 훈육을 끌고루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모의 훈육내용도 이성 자녀에 비해 동성 자녀를 대할 경우 더 다양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모가 훈육을 할 때에 동성의 자녀에게는 엄격하고 이성의 자녀에게는 관대하다는 기준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내용이었다. 모델링을 통해서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엔, 남자가 언행일치, 성실함을 보여주는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은 반면, 여자는 예절, 사랑,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을 실천하는 모델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건의 경험을 통해서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은 경우 사건의 내용은 도둑질과 거짓말이 전체의 68%를 차지하였으며, 이 과정을 통해서 연구대상자들은 ‘정직’과 관련된 도덕성을 가장 많이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63%). 한편 위인전이나, 동화책, 교과서 등의 책을 경험함으로써 아동기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받은 경우엔, ‘사랑’, ‘사회규범’과 관련된 내용의 도덕성을 가장 많이 형성하게 되었으며, 종교를 통해서 도덕성이 형성된 경우엔, ‘반성’하는 생활을 도덕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한편 아동기에 형성된 도덕성은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 사람의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94%). 그러나 408명의 연구 대상자 중 23명

(남 3, 여 20)은 아동기 때 형성된 도덕성이 아동기 또는 청소년 까지만 영향을 미쳤으며, 현재는 21세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고 진술하였는데, 사람의 경험에서 14명(남 1, 여 13명), 사건의 경험에서 1명(남), 책의 경험에서 6명(여), 그리고 종교의 경험에서 2명(남녀 각각 1명)이 도덕적으로 이러한 변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의 경험에서 훈육자나 모델의 태도가 일관성이 없고, 가식적이거나, 너무 강압적인 경우에 나타났으며, 책의 경험에서는 책의 내용이 현실과 너무 떨어지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그리고 종교의 경험에서는 종교인이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 종교에 회의를 느낀 경우 등이 포함되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책의 경험에서의 결과 내용인데, 특정의 책을 통해서 도덕성 형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42명 가운데, 6명(동화책 2명, 교과서 4명)은 아동기가 지나면서 그 책의 내용에 대해 대단한 실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화책의 경우, 착한 사람이 마모 취급을 당하고 손해보는 사회를 직접 겪어 봄으로써 ‘권선 정악’을 믿지 않게 되었고, 교과서의 경우는 책의 내용과 실제와의 차이를 발견하면서부터 이와 관련된 교과서 내용을 모두 불신하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책의 내용이 실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배신감을 느꼈다”는 표현을 썼는데, 특히 바른생활 교과서의 경우, 이에 영향을 받은 4명 중 3명이 성장하면서 책의 내용을 불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아동의 도덕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바른생활교과의 교육내용과 목표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본다. 이 밖에 아동기에 형성된 도덕성에 대해서 성장 후 반발을 느끼거나, 가치관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많다는 결과도 주목할 만하다(남 3, 여 20). 이에 대한 원인은 개인마다 경험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설

명해서는 안되겠지만, 여자의 경우, 어린시절 부터 사회규범을 따르는 것, 사랑을 실천하는 것, 충효 예절을 지키는 것 등과 관련된 훈육을 많이 받은 데에도 원인이 있으리라고 본다.

한편 연구대상자들이 자신의 도덕성 발달에 관해 보고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정직’ ‘사랑’ ‘사회규범’ ‘분별력’ ‘충효예절’ ‘성실’ ‘반성’ ‘책임감’ 등의 순서로 관련지어 진술한 것으로 보아, 연구대상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도덕성의 개념은 ‘정직한 것’과 가장 관련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연구대상자들이 진술에서도 도덕적인 것을 평가할 때, 사람의 태도와 행동 모두를 고려하는 엄격함을 보였다는 것이다. 행위의 동기, 행위 자체, 행위 후의 태도가 모두 일관성이 있고 신뢰로운 경우에만 도덕적으로 인정하고 승복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도덕적인 가치기준이 매우 엄격함을 나타냈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후속연구의 진행을 촉구하게 된다. 하나는 부모의 훈육태도에 관한 것이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부모의 훈육내용과 방법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검토가 요망된다. 만약 아버지와 어머니가 자녀의 성별에 따라 도덕적 기준이나 관심 또는 기대의 수준을 달리하여, 양육과 교육을 수행한다면, 자녀가 갖게 될 가치관의 혼란을 어떻게 정립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정과 학교와 사회는 물리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들 환경이 각기 다른 방향의 가치관을 추구할 경우, 아동의 도덕적 내면화 과정은 많은 갈등 속에서 진행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렇게 차별화된 양육 과정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이 동일한 사회내의 구성원으로서 역할분담과 역할 수행을 조화롭게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도 간단한 것은 아니다. 오늘날

의 사회는 그 변화속도가 빠르고 복잡하기 때문에, 구성원 모두, 인식의 대전환이 없이는 사회에 제대로 적응할 수가 없고, 역할분담이나 책임영역에 있어서도 사회적으로 성의 구별을 둘 여유가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두 번째는 아동의 도덕발달을 담당하고 있는 도덕교과에 대한 검토이다. 교과서란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는 지침서이다. 그러므로 교과서는 교육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가장 전실되게 담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이 신뢰롭고 설득력이 있어야 교육의 효과가 나타남은 물론이다. 더구나 도덕교과목은 국가가 추구하고 있는 이상적인 인간상을 길러내기 위해 아동에게 올바른 가치관과 인성을 심어주는 것이고 교육목표임을 생각할 때, 교육현장에서 이러한 교육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거나, 또는 교육대상자가 교과의 내용을 불신하게 되어 오히려 교육목표와는 상반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단 3명이 이와 같은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만약 연구문제가 도덕교과에 대한 교육경험을 묻는다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났을지는 예측할 수 없다. 또한 아동기 도덕성을 형성하는데 도덕교과의 영향을 받았다고 진술한 4명 가운데 3명이 교과내용에 배반감을 느끼고 이와 상반된 가치관을 형성하거나, 또는 가치관 정립에 혼란을 느꼈다는 것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이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연구결과라고 본다. 따라서 교과서에 대한 검토와 더불어, 아동기와 청소년기, 그리고 성인기에 이르는 연령층을 대상으로 도덕교과교육에 대한 반응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세 번째는 특정의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도덕발달과정을 진술하게 하여 그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도덕성의 발달

을 아동기로 제한하였지만, 기간상의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현재 나의 태도와 행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가치관이 언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성인기의 도덕성이 형성되는 과정은 물론, 도덕성 발달에서 아동기의 발달과 성인기 발달이 어떤 관계속에 놓여 있는지도 보다 명확히 알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후속 연구들은 양육과 교육실제에서 우리가 아동에게 효율적으로 도덕적 내면화를 이끌어 줄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아동이 속한 사회가 도덕적으로 어떤 가치기준을 지향하고 있으며, 아동이 그려 한 가치관을 어떻게 내면화시켜 나가는지 하는 문

제라고 생각된다. 인간은 그가 속한 사회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으므로, 그가 속한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의 기준이 개개인의 가치관 형성에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이다. 아동이 성장하면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고, 그 가치관대로 실천하는 자신의 모습에 기쁨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하려면, 가정과 학교, 그리고 아동이 경험하는 모든 장면 장면이 도덕적으로 성숙되지 않으면 안된다. 성장기 동안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이 도덕성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본 연구를 통해서 거듭 확인 되었을 것이다. 부모가, 학교가 사회가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통찰도 함께 이루어졌으리라고 본다.

### 참 고 문 헌

- 문미옥(1983). 유아기 자녀의 아버지 역할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Adams, K A & Davis, L V (1978) The father's perception of his role and the child's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Toronto, Ontario, Canada) Research in Education, ED 177-306
- Armentrout, J A & Burger, G K (1972)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child rearing be-

havior at five grade level Developmental Psychology, 744-748

- Droppleman, V F & Shaeffer, E S. (1963) Boys and girls reports of maternal and patern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67, 648-654
- Hoffman, M L (1979)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feelings, and behavior. American Psychologist, 34
- Thompson, S (1975) Gender labels and early sex rol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46, 339-347

## ABSTRACT

### Content-Analysis of Self-Reports on Childhood Moral Socialization

Kim, Kwang Woong

Bang, Eun Ryung

This Study examined childhood moral Socialization in two aspects One is to examine the factors of childhood moral development and the other is to clarify the concept of morality

For this purpose, self-reports of 408 college students on their childhood moral experiences were analyzed

Data from the self-reports showed that:

1. The factors of childhood moral development are experiences with person, event, book, and religion
2. The morality formed in childhood has an effect on their behavior and attitude until adulthood
3. The concept of morality understood most in our society is "honesty"